지역 메아리

정읍시,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

정읍시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의 협력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에 선정돼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에 조성된다. 공동 육아나눔터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가족품앗이 활동 공간이다.

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돌봄 체계를 구축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홈-트리'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1억5천만원을 들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 중으로 7월 완공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발족… 축산 현안 · 지역사회 갈등 해결 '박차'

정읍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축산의 4대 문제인 '악취 · 분뇨 · 가축질병 · 안전한 축산물' 해결을 위해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지난 12일 출범한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은 민 · 관 · 산 · 학 · 연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축산단체 대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에코축산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축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또 축산농가와 시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갈등 해결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축산업 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인만큼 부정적인 문제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축산 4대 문제인 '악취 · 분뇨 · 가축질병 · 안전한 축산물' 해결을 위해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은 2018년 12월 기준 한우 8만 여두를 비롯한 돼지 35만 여두를 사육, 주요 축종에서 전국 1~2위의 사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전담부서인 에코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산업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한다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상공회의소 등 주요기관 방문

정읍시의회 의장(최낙삼)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정읍의 주요기관 · 시설 등 4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8일 첨단과학산업단지 국책연구소 4개 기업과의 만남에 이어서 정읍의 주요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읍소방서장(김종수)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신진균), 전북서남권 상공회의소회장(김적우),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장(변정국) 등을 차례로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읍소방서장과의 간담회에서 최 의장은 "건조한 봄철 산불예방과 가정내 화재예방을 위해 이통장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주문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과의 만남에서는 "신태인 · 감곡지역의 농배수로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물관리권을 동진지사에서 정읍지사로 가져와야 되며,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가뭄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서남권 상공회의소회장은 "제2산업단지 내 삼정산업의 악취문제가 심각하여 입주기업의 공장확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공장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장은 "노후배수관이 전국 23%에 비해 정읍은 45%로 매우 높은데 향후 노후관 개선비용 387억원(95.8km)이 소요될 예정으로 연차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이에 최 의장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최낙삼 의장은 "정읍시의회에서는 향후 주요 기관 · 시설 및 기업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의회 가져

정읍시가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김인태 부시장)를 개최하고 오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의회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이어 2019년도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998년 출연금 5억원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했다. 시는 매년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했다.

김인태 위원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여성단체와 참여단체가 사업수행 역량 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부서별 시민소통 활성화 방안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13일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으로 변화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소통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단소장과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6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58개 부서에서 62가지의 시민소통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상대방과 오해 없이 진정한 교감을 하는 것이 소통이며,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소통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고 밝혔다.

또 "복잡하고 광범위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부서간 업무공유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내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관련해 시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시민소통 강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고민하는 시간 가져

익산시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초청해 예술의전당에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펼쳤다.

'경제정책방향과 국가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특히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의 확보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론을 정립하고 예산 확보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익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사업들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사업화 과정에서 익산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며 시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은 정부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헌율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예산 관련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특강을 갖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7년 6503억원, 2018년 6721억원, 2019년 687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혈관숫자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정읍시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위한 건강 상담부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고고씽! 건강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건강 상담부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터를 방문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기초검진과 함께 영양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건강 상담부스는 지난달부터 매월 둘째 · 넷째주 수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주에는 정읍농협 연지동지점과 시청 민원실에서, 넷째 주에는 정읍농협 상동지점과 시기동 로컬푸드 매장에서 운영된다. 국민은행 정읍지점은 둘째 · 넷째주 모두 운영된다.

지난 해 보건소는 시청과 은행, 마트 등에서 건강 상담부스를 운영해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집중관리에 힘썼다. 특히 흡연과 음주 등 건강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20~50대에게 정기적인 기초검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자기 혈관 숫자를 아는 것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 하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진을 원하는 기관은 보건소(방문보건팀 ☎ 539-609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시, 만성질환 위험 시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개

익산시는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빅테이터를 활용해 모바일앱과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중성지방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시민이다.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혈압, 혈당, 활동량 등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의사와 간호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팀을 활용해 건강, 운동, 영양 등의 전문 상담과 건강관리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제시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생활을 실천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측정돼 보건소로 전송된다.

보건소는 이 정보를 분석해 서비스 시작 3개월, 6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나쁜 생활습관 변화여부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김재훈 기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군산 새만금으로 가즈아~

군산시민들의 염원 담은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최종 심사까지 '총력'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이전 후보지 1차 관문을 통과한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추진위원회는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추진위원장과 주요 기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축구종합센터 추진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축구종합센터 추진위는 신시 · 야미 부지의 접근성과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 남북 및 동서도로 개통 등 새만금이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해양성 기후로 미세먼지가 적어 훈련의 장소로 적합하며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개최 도시의 자부심과 축구 메카로서의 장점들을 선보였다.

시는 이러한 장점들과 더불어 축구센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로 확산시켜 최종 심사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아시아 축구를 넘어 이제 월드컵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축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이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축구종합센터가 군산 새만금에 유치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27만 군산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최종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8일 2차 PPT 심사를 통해 6개 지자체를 선정한 뒤 현장심사를 걸쳐 4월 중 우선협상 지자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금강철새조망대의 활성화를 위해 생태 · 환경 · 조류 시민단체들과 13일 철새조망대 생태학습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강모니터링단체 등 10개의 시민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새축제 폐지와 철새조망대의 활성화 방안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됐다.

철새조망대를 문화복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코스 개발, 독특한 체험프로그램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근대벨트화 지역과 금강권 전시장의 통합권 운영 기본 계획안에 대한 시민환경 전문가의 보완 및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적인 의견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받는 철새조망대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4회 군산꽁당보리축제의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돌입했다.

군산꽁당보리축제, 세부일정 확정 발대식 개최

군산시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4회 군산꽁당보리축제의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돌입했다.

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미성농업발전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군산꽁당보리축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서군산복합체육센터 부지(산북동 3179)에서 개최된다.

축제추진위원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은 지난 12일 꽁당보리축제 발대식을 개최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대표 농업축제로 만들어나가자고 다짐했다.

또 올해의 경우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해 축제장 시설, 행사 진행,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역 업체와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먹거리 부스 운영, 주차문제 해결, 행사장 내 군산사랑상품권 이용, 기상이변 대비책 마련 등 남은 축제 기간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병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축제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축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라며 "관련 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시 대표 농업축제로 발돋움 하는데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